

# 로HING야족, 아웅 산 수치 승리에 '불투명 미래'

### 미얀마 민주화 상징 '수치 여사' 소수민족 자유 대변할까 '주목'



아웅 산 수치 여사. 사진출처=ibtimes

25년 만에 열린 미얀마 총선에서 아웅 산 수치(Aung San Suu Kyi)가 이끄는 전국민주동맹(NLD, National League for Democracy)이 압승을 거두며, 미얀마에 '민주화 바람'이 불어왔다. 이에 따라 53년 간 이어 온 군부독재에 의해 탄압받던 '로HING야족 보트피플'도 본국으로 돌아올 수 있을 것이라 기대를 모으고 있다.

아시아지역 인터넷 언론 'Asian Correspondent'는 11월 19일 "미얀마의 소수민족들은 아웅 산 수치 여사가 그들에게 자유를 선사할 것을 간절히 믿고 있다"면서 "최근 국제인권단체들도 일제히 수십 년 이어온 로HING야족에 대한 탄압이 극한에 이르렀다고 평가하며,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아웅 산 수치 여사가 이 사태를 해결해 줄 것을 고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아웅 산 수치는 미얀마 내에서 '민주주의의 꽃'으로 평가된다. 1988년 민주화 시위 후 반군부 투쟁을 시작한 이후 미얀마 평화와 민주화를 주창해오며 1991년 노벨 평화상을 받았다. 이에 지난 1990년 총선에서도 압승을 거뒀으나, 군부가 총선결과를 무효화하며 아웅 산 수치를 15년 간 가택 연금한 바 있다.

'Asian Correspondent'는 키아라 폼미치(Chiara Formichi) 코넬(Cornell)대 아시아학과 교수 말을 인용하고 "몬(Mon)·산(Shan) 등 많은 소수민족 지역에서 NLD를 위해 투표했다"면서 "이는 자신들의 아웅 산 수치 여사가 자신들의 권리

### 11월 8일 미얀마 총선 압승 난민 로HING야족 구출여부 '관심' 국제인권단체들 기대 모아 "침묵 일관할 것" 비판 여론도

쟁취를 위해 나설 것이라 기대다. 그들은 오직 NLD만이 미얀마의 실질적 혁명을 가져올 거라 믿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일각에선 아웅 산 수치가 정치적 야망으로 로HING야족을 외면할 수도 있다는 회의를 표했다. 아웅 산 수치는 내년 초 예정된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를 거두기 위해선 여전히 25%의 상하원의원 지명권을 가진 군부와 적대적 관계로 돌아설 수 없으며, 불교도 국민들의 여론도 간과할 수 없다. 이 때문에 로HING야족을 위한 적극적 행보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 견해다.



미얀마 라카인(Rakhine)주의 주도 시트웨(Sittwe)에서 시민권을 가진 로HING야족 남성이 지난 11월 8일 열린 미얀마 총선에서 투표를 행사하고 있다. 사진출처=REUTERS

탄압을 피해 현재 인도 서부 텔리의 바이카스푸리(Vikasपुरi) 지역으로 쫓겨 온 로HING야족 오마 린(Ohmar Lynn·32)씨는 'Scroll In' rhk 인터뷰에서 "대선이 끝난 다해도 아무 것도 변하지 않을 것이다. 의원 총선을 앞두고도 우리 똑같은 기대를 했다"면서 "아웅 산 수치 여사는 정치적 균형을 위해 로HING야족 난민 사태 해결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 말했다.

아웅 산 수치는 이번 총선을 앞두고도 로HING야족에 대한 발언을 자제하는 모습을 보여왔을 뿐 아니라 2012년 로HING야족이 탄압 받을 당시에도 침묵으로 일관했다. 이에 대부분이 불교도인 국민들의 표심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사실상 아웅 산 수치는 영국인 남편과 결혼해 자녀를 뒀기 때문에 '외국인 배우자 혹은 자녀를 둔 자는 대통령 선거 출마를 금지한다'는 미얀마 법에 따라 직접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그러나 최근 아웅 산 수치는 BBC등 외신 언론과 인터뷰에서 "실질적 통치자로 대통령 위에 있을 것"이라는 강한 발언을 내뱉으며, 자신의 대리인을 대선 후보로 내세울 것이라 암시했다.

한편, 로HING야족은 불교도가 90% 이상인 미얀마에서 약 4%를 차지하는 이슬람교도 민족이다. 그간 미얀마 정부는 로HING야족에 시민권을 부여하지 않고, 불교도와 이슬람교도의 혼인 금지 등 가혹법을 도입하며 로HING야족을 탄압해 왔다.

3년 전 미얀마 라킨(Rakhine) 지역에선 불교도와 이슬람교도 간 내전이 발발하기도 했다. 이에 2천여 명 이상 로HING야족은 대형 보트에서 생활하는 '해상 피난민' 이 됐다. 보트 난민 생활을 하는 로HING야족의 수는 해마다 증가해 국제적 문제로 대두된 실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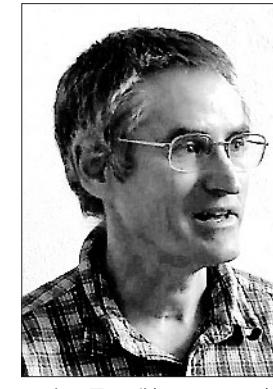
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 "아이들 명상, 참구보단 대화로"

### 마샤 로즈 등 美 명상 전문가들 '이구동성'



마샤 로즈(Marcia Rose)



길 프론스달(Gil Fronsdal)



마이클 그레디(Michael Grady)

아이들에게 불교를 알려주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

미국에서 상좌부 불교의 수행법인 위빠사나를 가르치고 있는 명상 전문가들과 그들 인터뷰를 진행한 'Lion's Roar'는 11월 13일 "아이들에게 불교를 알리는 첫걸음은 부모와 함께 사원이나 센터를 방문해 수행자가 직접 진행하는 명상과 토론 프로그램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런 그룹 인터뷰에는 'Insight Meditation Society'의 마샤 로즈(Marcia Rose), 'Spirit Rock Meditation Center'의 길 프론스달(Gil Fronsdal), 'Cambridge Insight Meditation Center'의 마이클 그레디(Michael Grady) 등 3명의 명상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이 자리에서 "가족 중심의 명상과 토론 명상이나 토론 과정에서 서로 공유하고 있는 기억을 끄집어내고 반복과 치유의 길을 함께 걷고 있다"며 "이 과정이 되풀이 되면서 아이들에게는 스토리텔링의 과정이 되었다"고 말했다.

현재 마샤 로즈는 뉴욕 올리언즈 카운티의 휴양지인 바(Barre)의 'Insight Meditation Society'에서 위빠사나를 가

르치고 있다.

또한 "부모와의 교감만큼이나 '협찬 포행'도 아이들과 불교의 관계를 더욱 긴밀하게 한다"고 전제한 길 프론스달은 "아이들에게는 참구 보다는 명상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며 질문에 귀 기울이고, 명상 할에서도 자유롭게 뛰어나도록 해야 한다"며 "아이들에게 수행자와의 대화와 명상 할에서의 '협찬 포행'은 그 자체가 '불법 탐험' "이라고 강조했다.

길 프론스달은 캘리포니아 해안도시 레드우드(Redwood)의 'Spirit Rock Meditation Center'에서 위빠사나를 가르치고 있다.

이밖에도 "매주 일요일 2시간씩 10세~13세 아이들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진행하고 있다"는 마이클 그레디는 "3분 정도 침묵의 시간을 보내는 것 외에 '마음챙김과 윤리' '마음챙김을 왜 해야 하나' 등을 주제로 스님과 명상지도자와 함께 질의응답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며 "마음챙김은 연속성이 중요하데 이런 과정이 아이들에게 스스로의 마음을 다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마이클 그레디는 매사추세츠 케임브리지(Cambridge)의 'Insight Meditation Center'에서 위빠사나를 가르치고 있다.

오종욱 편집위원



딜고 크렌체 양시(Dilgo Khyentse Yangsi· 사진 맨 오른쪽) 스님이 아이들에게 부처님 이야기를 들려주며 아이들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

# 美 펜실베니아 불교학교 '폐교 위기' 처해

### 재정 압박 못 견뎌... 교직원 및 학부모 '학교 살리기 운동'



펜실베니아 한적한 시골인 벅스 카운티(Bucks County)에 설립된 불교학교 티니컴(Tincum)이 폐교 위기에 놓여 있다.

1997년 지역 유력 정치인의 상속자가 세운 불교학교가 폐교 절차를 밟고 있어 주변을 안타깝게 하고 있다.

'필리마켓'은 11월 14일 "펜실베니아 한적한 시골인 벅스 카운티(Bucks County)에 설립된 티니컴(Tincum)이 폐

교 절차를 밟고 있다"며 "펜실베니아의 유명 정치인 하인즈 상원의원의 장남 H. 존 하인즈 4세(상속자)가 불교를 운영 가치로 삼고 설립한 티니컴 학교가 재정 악화로 운영까지 폐교된다"고 전했다.

'필리마켓'에 따르면 티니컴 학교에는 학습부진과 언어장애를 조려하는 '아스퍼거 증후군'을 앓고 있는 학생들이 명상과 공부를 병행하던 학교로, 지역 사회의 관심을 받으며 발전했다. 학교 예산 대부분은 하인즈 4세가 부담했다. 종교 관련 학교는 지역 교육 당국의 지원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했다. 초창기 1인당 2만 8천 달러였던 학비는 18년이 지난 지금 8만 5천 달러로 늘어났고, 결국 H. 존 하인즈 4세는 폐교를 결정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교사와 학생, 학부모들이 '티니컴 살리기'에 나섰다. 학부모 페니 에팅거(Penny Ettinger)는 '필리마켓'과 인터뷰에서 "부유한 상속인의 후원에만 의존하는 게 교육 재단의 종속이 얼마나 위험하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교사와 학생, 학부모가 머리를 맞대고 공공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역 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어 H. 존 하인즈 4세와 교육 당국의 새로운 결심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필리마켓>은 "학교법인의 폐교 수순은 진행되고 있다"며 "민약 교사와 학생, 학부모가 지역 사회를 움직일 수만 있다면, 명문 정치가 집안으로서 지역 민심에 귀 기울여야 하는 H. 존 하인즈가 새로운 결심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오종욱 편집위원

## 마음의정원 {랄랄라 진관사}

- 구수하고 깨달음이 담긴 이야기 보따리가 뽀뽀 터질 것 같은 느낌이다. <세계일보>
- 진관사의 역사와 전설, 아름다운 경내, 소박한 절법 전통 등을 총망라한 책이다. <미디어부터>
- 비구니 스님들의 새벽 예불, 소박한 전통이 남아 있는 사찰 음식, 아름다운 건물과 자연환경 등을 글과 사진으로 담아냈다. <연합뉴스>
- 최근 출간된 '랄랄라 진관사(클리어마인드)'는 도심 사찰도 아니고 산사도 아닌 진관사의 모든 것을 보여준다. <조선일보>
- 많은 이들이 꿈에 그리던 절을 찾아내 널리 알리는 책을 내는 일을 복으로 받아들였다. <중략> '절집 이야기 시리즈' 라는 이름을 붙였다. 그 첫번째가 진관사다. <불교포커스>

절집이야기 1  
마당을 거닐거나 법당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 마음이 편해지는 절이 있습니다. 나보다는 항상 남을 먼저 생각하게 하고, 머리가 맑아지고 마음 편하게 머물 수 있는 곳! 클리어마인드 <절집이야기> 시리즈는 이런 절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황찬익·수경 지음 / 클리어마인드 / 값 15,000원 전화 (02) 2198-5151 / 팩스 (02) 2198-5153 / 이메일 gobs108@hanmail.net

지혜를 들여다 보면 자신이 보인다!!!

## 얀트라 YANTRA

The Tantric Symbol of Cosmic Unit

우주적 합일의 만트라 상징 안트라  
안트라는 명상과 의례의 도구이며, 복잡한 형이상학적 상징이다.

이 책은 안트라에 대한 이해를 얻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점이다. 170점 이상의 흑백과 컬러 안트라 이미지를 제공하고 있다. 저자는 근원적 전체로 회귀하기 위한 명적 여정에 도움을 주는 우주적 합일의 만트라 상징으로 안트라라 의례적 과정을 차례로 설명한다. 이 책은 매우 중요한 인도의 강력한 상징에 대한 모든 측면을 설명한다. 안트라라는 전통적 사원 건축과 조각, 명상에 활용되며, 의례와 만트라와 관련된다. 저자는 인도의 흑주술과 백주술 전통 모두에 사용되는 안트라 뿐만 아니라 부적으로서 힘을 가지는 안트라에 대해서도 밝히고 있다.

가격 : 19,800원 / 마두 카나 지음 | 심상욱 옮김

철리와 과학, 수행법을 구체적으로 해설한 부처님 경전

마음은 무엇이며 그 수행은 어떠한 것인가?  
천명일 선생의 명쾌한 해설로 부처님 말씀을 생생하게 듣는 듯합니다.

## 수능엄경 (首楞嚴經)

천명일 해설

가격 : 상 20,000원 / 중 20,000원 / 하 27,000원 | 세트 전 3권 값 67,000원

도서출판 지혜의나무 [전화 02-730-2211]